
경영컨설팅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

신용재*, 임명성**

The Role of the Business Consulting Industry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An Input-Output Analysis

Yong Jae Shin*, Myung-Seong Yim**

요 약 컨설팅 산업은 타산업의 지식의 집약화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화를 창출하거나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컨설팅 산업의 이러한 본질적인 가치와 내재적인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산업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경영컨설팅 산업의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2005년 0.6933원에서 2009년 0.7851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05년 0.2881원에서 2009년 0.3039원, 취업유발효과는 2005년 0.1124명에서 2009년 0.12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원 생산이 지장될 때, 공급유도모형에 의한 공급지장효과는 2005년 2.6759원에서 2009년 3.0145원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에 의한 물가파급효과는 2005년 0.1691%에서 2009년 0.21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경영컨설팅 산업은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원활한 생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임을 확인하였고,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경영컨설팅 산업, 산업연관분석, 수요유도모형, 공급유도모형, 레온티에프 가격 모형, 외생화

Abstract Consulting industry is a knowledge intensive business service industry to lead to knowledge creation as well as support high value creation of other industries. While the consulting industry has a great ripple effect on whole industries, there is a lack of interest in the consulting industry.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a ripple effect of the consulting service on the national economy using an Input-Output analysis. We summarize some of our findings as follows. First, A production of 1.0 won in the business consulting industry induces production of 0.6933 won in 2005 and 0.7851 in 2009; value-added of 0.2881 won in 2005 and 0.3039 won in 2009. A production of 1.0 billion won in the business consulting industry Industry produces employment for 0.1124 persons in 2005 and 0.1207 persons in 2009. Second, the supply shortage of 1.0 won in the business consulting industry prevents other industries from producing 2.6759 won in 2005 and 3.0145 won in 2009. Third, a 10% increase in the price level of the business consulting industry raises the overall price level from 0.1691% in 2005 to 0.2161% in 2009.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consulting industry has been increasing a effect on Korea national economy.

Key Words : Business Consulting industry, Input-Output Analysis, Demand-Driven Model, Supply-Driven Model, Leontief Price Model, Exogenous Specification

1. 서론

지식사회에 접어들면서 대표적 지식산업인 컨설팅산

업은 국제적으로 지속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경영 컨설팅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2]. 컨설팅 산업의 성장 이유는 컨설팅 시장의 성장 동력 다양화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박사수로

**삼육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2년 7월 3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8월 31일

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인수·합병 붐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종합적인 지식산업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경제 활력 제고에 있어서 컨설팅 업체의 영향력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7]. 여기서, 경영컨설팅이란 경영전략, 조직혁신, 마케팅, 생산, 재무, 인사, 경영정보시스템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3][4].

컨설팅 산업은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집약화 및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식산업으로서 국가 산업 인프라 역할을 한다[2]. 이로 인해 정보에서는 컨설팅산업의 발전방향을 계획하고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지원체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컨설팅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7]. 따라서, 경영컨설팅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는 해당 산업 자체의 발전과 더불어 그 외의 부분에 있는 기업들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향상시키므로 다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3][4].

이처럼 컨설팅 산업은 타산업의 지식의 집약화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화를 창출하거나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8].

현재 한국의 컨설팅 산업의 시장규모는 2002년에서 2006년의 평균 30% 성장해왔으며, 2012년에는 매출액 19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1]. 하지만, 컨설팅 산업의 이러한 본질적인 가치와 내재적인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산업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계 컨설팅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머지 자국 컨설팅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매우 부족하다[7].

예를 들어,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17개 은행의 컨설팅 비용 2,982억 원 중 74%에 해당하는 2,199억 원과 경영자문 건수 33건 중 94%를 외국계 컨설팅사가 수행하였다. 반면, 국내 컨설팅사는 같은 기간 단 2건, 46억 원으로 각각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러한 차이는 컨설팅사의 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에서 외국계 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컨설팅 기업의 경우 자국 기업의 니즈 파악이 현실적이고 비용 또한 국내 현실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컨설팅사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컨설팅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수요 기반이 필요한데 이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컨설팅 산업의 주요 수요 기반은 정부/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들이나 정부기관은 비효과적인 프로젝트 운영으로 컨설팅 업체들에게 확실한 수요 기반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 편중된 확장을 하고 있다. 중견 그룹 및 중소기업의 경우 수요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8].

이와 같은 컨설팅 시장의 성장이 제한적인 것은 컨설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결국 국내 컨설팅 산업 수요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8].

컨설팅 산업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컨설팅 산업의 현황 및 구조, 경영컨설팅 각 분야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 또는 컨설팅 사례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해왔으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연구가 없었다[2][5][6][9][10].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2005년과 2009년간의 경영컨설팅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경영컨설팅 산업의 파급 정도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2장 연구 방법론, 3장 연구 결과 이후 4장에서는 결론으로 구성된다.

2.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경영컨설팅 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산업파급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미국의 Leontief 교수가 처음 시도한 것으로 산출량 결정에 대해 선형인 부문 간 모형으로 한 부문의 생산수준 변화가 다른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연속적인 수요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를 나타낸다. 이 모형은 투입요소의 판매와 구매사이의 연관관계에 강조를 둔 일반균형모형을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다[12][13].

투입산출분석에서는 관심대상 변수를 외생적으로 취급하여 그 변수가 내생적인 경제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를 외생화(exogenous specification)라고 한다. 이런 외생화의 방법을 쓰게 되면, 총수요가 아닌 특정부문의 산출물이 미치는 영향과 그 산출물이 타 산업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1]. 외생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산업연관표의 특성상 경영컨설팅 산업 부분의 변화에 대한 타 산업의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영컨설팅 산업이 중복되어 계산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5년, 2009년 산업연관표의 기본 부문 362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산업을 분류하여 통합 대분류 29부문으로 외생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1 수요유도형 모형

2.1.1 생산유발효과

수요유도형 모형에서 분석대상인 경영컨설팅 부문을 외생화하여 생산유발효과를 식으로 정리하면 식(1)이 유도된다.

$$\Delta X^{en} = (I - A^{en})^{-1} (A^{ex} \Delta X^{ex}) \quad (1)$$

(단, en 은 내생부문의 약자, ex 는 외생부문의 약자)

ΔX^{en} 은 분석대상인 외생화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산출량으로서 경영컨설팅 부문의 산출에 영향을 받은 타 부문의 산출 증감량을 나타낸다. $(I - A^{en})^{-1}$ 는 투입계수행렬에서 외생화 부문이 포함된 열과 행을 제외시켜 작성한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나타낸다. A^{ex} 는 투입계수행렬 A 에서 외생화 부문을 나타내는 열벡터 중에서 외생화 부문 원소를 제외한 열벡터이며, X^{ex} 는 외생화 부문의 산출액을 나타낸다.

위 식(1)은 관심대상인 외생화 부문을 중심으로 한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식으로서, 외생화 부문의 산출이 경제 내 다른 부문의 산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외생화 부문에 대한 투자는 자체로서의 산출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관효과를 통해 타 산업 부문의 생산을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전체 산업의 생산을 촉진하므로, 식(1)로부터 외생화부문의 총 산출 또는 총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를 구할 수 있다[14].

2.1.2 부가가치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란 최종수요 한 단위 변화가 부가가치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여기서 경영컨

설팅 산업의 산출액 증가가 타 부문에 미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최종수요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경영컨설팅 산업을 외생화하면 아래 식(2)가 유도된다.

$$\Delta W^{en} = \widehat{A}^V (I - A^{en})^{-1} (A^{ex} \Delta X^{ex}) \quad (2)$$

ΔW^{en} 은 분석대상인 외생화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부가가치 변화분을 의미한다. \widehat{A}^V 는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에서 외생화 부문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을 의미한다. 식(2)를 통해 경영컨설팅 부문의 산출액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구할 수 있다.

2.1.3 취업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란 경영컨설팅 산업의 생산이 1원 만큼 증가하였을 때, 경영컨설팅 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의 취업자가 얼마나 증가하게 되는지를 의미한다.

$$\Delta N^{en} = \widehat{n}^{en} (I - A^{en})^{-1} (A^{ex} \Delta X^{ex}) \quad (3)$$

여기서 취업계수(n_i)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된 노동량(N_i)을 총 산출액(X_i)으로 나눈 계수($n_i = N_i/X_i$)로서 한 단위 생산에 직접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한다[8]. N^{en} 은 외생화 부문을 제외한 각 부문별 취업인수를 나타내며 ΔN^{en} 은 그 변동량을 의미한다. \widehat{n}^{en} 은 취업계수 대각행렬에서 외생화 부문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이다.

2.2 공급유도형 모형

공급유도형 모형에서 사용되는 계수를 산출계수라고 하며, 산출계수를 이용하여 $(I - R^{en})^{-1}$ 인 산출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 분석대상인 경영컨설팅 부문을 외생화한 식은 다음과 같다.

$$\Delta X'^{en} = \Delta X^{ex} R^{ex} (I - R^{en})^{-1} \quad (4)$$

R^{en} 은 산출계수행렬 R 에서 경영컨설팅 부문의 행과 열을 제외시킨 것이며, R^{ex} 는 앞에서 제외시킨 산출계수행렬의 경영컨설팅 부문 행벡터에서 경영컨설팅 부문

의 값을 제외시킨 것을 나타낸다. 식 (4)을 이용하여 경영 컨설팅 부문의 공급지장이 각 산업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공급지장비용(shortage cost)이라고 한다[15].

2.3 레온티에프 가격모형(물가파급모형)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금액단위 산업연관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원래 투입산출분석의 중요한 문제는 수급균형식을 이용한 물량단위 과급효과분석이다. 따라서 산업연관표를 열로 본 각 산업부문의 구성은 각 산업 부문의 생산활동에 대한 비용구조를 나타내므로, 이를 이용하면 가격변화의 과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레온티에프 가격모형 또는 물가파급모형이라고 한다 [14],[15].

$$\overline{\Delta P} = (I - A^{en'})^{-1} A^{ex'} \overline{\Delta P^{ex}} \quad (5)$$

여기서 $\overline{\Delta P}$ 는 외생화 부문이 제외된 가격변동을 벡터이며, $\overline{\Delta P^{ex}}$ 는 외생화부문의 가격변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A^{ex'}$ 는 $A^{en'}$ 의 외생화 부문 열벡터에서 외생화 부문의 원소만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위의 식(5)을 이용하여 외생화 부문의 가격인상이 타 산업부문에 미치는 물가파급효과를 계측할 수 있다.

2.3.1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 계수

산업연쇄효과의 전방연쇄효과는 확산감응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감응도계수라 불린다. 감응도계수 (FL i)는 전 부문의 최종수요를 모두 한 단위씩 증가시키기 위해 i번째 산업이 생산해야 할 단위의 전산업 평균치에 대한 비율로 i부문에 대해 식 (6)으로 정의된다.

감응도 계수 = 생산유발계수행렬의 행합/생산유발계수행렬의 행합의 전 산업평균

$$FL_i = \frac{\frac{1}{n} \sum_{j=1}^n \alpha_{ij}}{\frac{1}{n^2} \sum_{i=1}^n \sum_{j=1}^n \alpha_{ij}} \quad (6)$$

산업연쇄효과의 후방연쇄효과는 확산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향력계수라 불리며 전 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

에 대한 산업별 유발계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영향력계수 (BL j)는 j번째 산업에 대해 식 (7)로 정의된다.

영향력 계수 = 생산유발계수행렬의 열합/생산유발계수행렬의 행합의 전 산업평균

$$BL_j = \frac{\frac{1}{n} \sum_{i=1}^n \alpha_{ij}}{\frac{1}{n^2} \sum_{i=1}^n \sum_{j=1}^n \alpha_{ij}} \quad (7)$$

3. 연구 결과

3.1 수요유도모형

다음 표. 1, 2, 3은 경영컨설팅산업에 대해 수요유도 모형을 적용하여 산출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낸다. 우선 생산유발효과는 경영컨설팅 산업의 생산액 1원만큼 증가할 때 타 부문의 생산을 얼마나 유발하는지를 나타낸다. 한국의 경영컨설팅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005년 0.6933원 2009년은 0.7851원으로 소폭의 상승을 보였다. 경영컨설팅 산업 생산에 따른 세부 생산유발 산업은 2005년과 2009년 모두 22부문 통신 및 방송,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그리고 28 부문 기타산업에서 가장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산업 역시 두 기간 동일하게 25부문 공공행정 및 국방, 14부문 정밀기기, 9부문 비금속광물제품으로 나타났다.

[표 2-3]는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경영컨설팅 산업의 산출이 1원만큼 늘어날 때 타 부문에 유발되는 부가가치액을 의미한다. 두 기간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05년 0.28805원, 2009년은 0.30393원으로 나타났으며, 두 기간 동일하게 24부문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2부문 통신 및 방송, 27부문 사회 및 기타서비스, 2부문 광산품 산업이 경영컨설팅 산업의 생산에 따라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낮은 산업은 14 부문 정밀기기, 25부문 공공행정 및 국방, 9부문 비금속 광물제품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효과는 경영컨설팅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0 억원이 발생할 경우 타 부문에 유발되는 취업인원을 나타낸다. 취업유발효과 역시 2005년도에 비해 2009년의 유발효과가 소폭 상승하였다. 이중 가장 높게 나타난 산

〈표 1〉 경영컨설팅산업의 수요유도모형 결과

번호	부문	2005		2009		2005		2009		2005		2009	
		생산 유발	순위	생산 유발	순위	부가가치 유발	순위	부가가치 유발	순위	취업자 유발	순위	취업자 유발	순위
1	농림수산물	0.0117	18	0.0130	18	0.0068	13	0.0068	13	0.0007	22	0.0009	21
2	광산품	0.0317	8	0.0442	6	0.0184	4	0.0259	3	0.0070	5	0.0099	4
3	음식료품	0.0189	14	0.0218	14	0.0054	15	0.0055	14	0.0014	14	0.0014	15
4	섬유 및 가죽제품	0.0041	24	0.0041	24	0.0013	23	0.0012	24	0.0007	23	0.0006	24
5	목재 및 종이제품	0.0147	17	0.0174	17	0.0040	16	0.0048	16	0.0020	13	0.0022	13
6	인쇄 및 복제	0.0255	13	0.0280	13	0.0107	10	0.0109	9	0.0055	9	0.0044	9
7	석유 및 석탄제품	0.0435	5	0.0514	4	0.0132	8	0.0104	10	0.0008	21	0.0006	23
8	화학제품	0.0323	7	0.0400	7	0.0074	12	0.0080	11	0.0032	11	0.0034	10
9	비금속광물제품	0.0029	26	0.0037	26	0.0009	25	0.0011	25	0.0004	26	0.0004	25
10	제1차 금속제품	0.0150	16	0.0194	15	0.0029	18	0.0029	18	0.0009	20	0.0011	17
11	금속제품	0.0053	21	0.0065	21	0.0017	21	0.0018	21	0.0010	18	0.0009	20
12	일반기계	0.0055	20	0.0067	20	0.0015	22	0.0018	20	0.0009	19	0.0010	18
13	전기 및 전자기기	0.0316	9	0.0333	11	0.0079	11	0.0070	12	0.0033	10	0.0028	12
14	정밀기기	0.0023	27	0.0024	27	0.0007	27	0.0006	27	0.0004	27	0.0003	27
15	수송장비	0.0098	19	0.0105	19	0.0021	19	0.0025	19	0.0013	16	0.0012	16
16	기타제조업제품	0.0035	25	0.0044	23	0.0010	24	0.0012	23	0.0006	24	0.0007	22
17	전력,가스및수도	0.0154	15	0.0190	16	0.0063	14	0.0055	15	0.0014	15	0.0018	14
18	건설	0.0046	22	0.0040	25	0.0021	20	0.0016	22	0.0013	17	0.0010	19
19	도소매	0.0271	12	0.0324	12	0.0161	6	0.0190	6	0.0070	6	0.0078	6
20	음식점 및 숙박	0.0294	10	0.0366	9	0.0118	9	0.0139	8	0.0056	8	0.0067	8
21	운수	0.0349	6	0.0392	8	0.0150	7	0.0147	7	0.0080	4	0.0085	5
22	통신 및 방송	0.0961	1	0.0998	1	0.0468	2	0.0441	2	0.0170	2	0.0168	2
23	금융 및 보험	0.0283	11	0.0348	10	0.0178	5	0.0193	5	0.0069	7	0.0074	7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788	2	0.0931	2	0.0539	1	0.0632	1	0.0175	1	0.0222	1
25	공공행정 및 국방	0.0011	28	0.0009	28	0.0008	26	0.0006	26	0.0006	25	0.0004	26
26	교육 및 보건	0.0042	23	0.0064	22	0.0029	17	0.0042	17	0.0023	12	0.0034	11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576	4	0.0497	5	0.0289	3	0.0254	4	0.0147	3	0.0130	3
28	기타	0.0576	3	0.0624	3	0.0000	28	0.0000	28	0.0000	28	0.0000	28
합계		0.6933		0.7851		0.2881		0.3039		0.1124		0.1207	

업은 24부문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2부문 통신 및 방송 그리고 27부문 사회 및 기타서비스가 두 기간에서 동일하게 높은 효과를 보였다. 반면 낮은 효과를 나타낸 부문은 14부문 정밀기기, 25부문 공공행정 및 국방, 9부문 비금속광물제품으로 나타났다.

3.2 공급유도모형과 레온티에프 가격(물가파급효과) 모형

다음은 공급유도 모형과 레온티에프 가격 모형에

의해 도출된 경영컨설팅산업의 공급지장 효과와 물가파급 효과에 대한 결과이다. 여기서 공급지장효과란 경영컨설팅산업의 산출액 1원 감소에 의해 타 부문에 발생하는 생산 감소분을 의미하며, 물가파급효과는 10% 가격 상승으로 인한 타 부문에 미치는 물가에 대한 영향에 관한 것이다.

경영컨설팅 산업의 공급지장효과는 2005년 2.6758원, 2009년 3.0145원으로 다른 경제적 효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영컨설팅 산업의 산출액 1원 감소에 따른 타산업의 공급지장효과는 두 기간 동안 동일하게 13부문 전기

〈표 2〉 공급지장효과와 물가파급효과

번호	부문	2005		2009		2005		2009	
		공급지장	순위	공급지장	순위	물가파급	순위	물가파급	순위
1	농림수산물	0.029	22	0.0326	22	0.0030	24	0.0044	23
2	광산품	0.002	28	0.0015	28	0.0021	28	0.0028	28
3	음식료품	0.118	10	0.1256	10	0.0074	8	0.0092	10
4	섬유 및 가죽제품	0.079	13	0.0870	15	0.0086	4	0.0129	3
5	목재 및 종이제품	0.022	23	0.0226	24	0.0052	15	0.0061	17
6	인쇄 및 복제	0.020	25	0.0203	25	0.0126	2	0.0172	2
7	석유 및 석탄제품	0.046	19	0.0608	17	0.0027	26	0.0039	25
8	화학제품	0.246	2	0.2629	2	0.0080	5	0.0096	8
9	비금속광물제품	0.022	24	0.0258	23	0.0042	19	0.0053	19
10	제1차 금속제품	0.201	3	0.2614	3	0.0078	7	0.0101	6
11	금속제품	0.069	15	0.0936	14	0.0072	10	0.0096	7
12	일반기계	0.093	12	0.1064	12	0.0060	12	0.0076	12
13	전기 및 전자기기	0.332	1	0.3731	1	0.0079	6	0.0095	9
14	정밀기기	0.016	26	0.0180	26	0.0063	11	0.0081	11
15	수송장비	0.172	6	0.1849	6	0.0059	13	0.0070	13
16	기타제조업제품	0.016	27	0.0172	27	0.0052	16	0.0067	15
17	전력,가스및수도	0.035	21	0.0385	21	0.0034	23	0.0041	24
18	건설	0.121	8	0.1400	8	0.0036	22	0.0051	21
19	도소매	0.113	11	0.1272	9	0.0048	17	0.0064	16
20	음식점 및 숙박	0.048	18	0.0591	18	0.0038	20	0.0053	20
21	운수	0.066	16	0.0696	16	0.0038	21	0.0047	22
22	통신 및 방송	0.190	5	0.1594	7	0.0175	1	0.0190	1
23	금융 및 보험	0.140	7	0.2123	5	0.0072	9	0.0117	4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199	4	0.2144	4	0.0045	18	0.0058	18
25	공공행정 및 국방	0.041	20	0.0450	20	0.0027	27	0.0033	27
26	교육 및 보건	0.073	14	0.0939	13	0.0029	25	0.0038	26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119	9	0.1097	11	0.0092	3	0.0102	5
28	기타	0.051	17	0.0517	19	0.0056	14	0.0070	14
합계		2.6759		3.0145		0.1691		0.2161	

및 전자기기, 8부문 화학제품, 10부문 제1차 금속제품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부문 광산품, 16부문 기타제조업 제품, 14부문 정밀기기는 공급지장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가파급효과는 2005년 0.1691원, 2009년 0.2161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산업의 파급효과는 두 기간 동안 근소한 차이에서 순위의 변화는 있었지만 22부문 통신 및 방송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6부문 인쇄 및 복제, 27부문 사회 및 기타서비스, 4부문 섬유 및 가죽 제품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부문 광산품, 25부문

공공행정 및 국방, 7부문 석유 및 석탄제품, 26부문 교육 및 보건의 순으로 물가파급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3.3 산업간 연쇄효과분석

경영건설업 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연관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 계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감응도 계수(전방연쇄효과 : Forward linkage effect)란 연구 대상인 경영건설업의 산출물을 다른 산업 생산의 원료로 파악하는 것이며, 영향력 계수(후방연쇄효과 : Backward linkage effect)는 반대로 경영건설업

산업의 산출물을 최종재로 보고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경영컨설팅 산업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보는 것이다.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 계수의 평균은 1이므로 1보다 낮으면 평균보다 낮으며, 1보다 크면 평균보다 크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의 크기에 따라 산업부문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두 계수가 모두 높으면 중간 수요적 제조업형, 감응도계수가 높고 영향력 계수가 낮으면 중간 수요적 원시산업형, 영향력 계수가 높고 감응도 계수가 낮으면 최종수요적 제조업형,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 계수가 모두 낮으면 최종 수요적 원시산업형이라 한다[15].

이 기준에 의하여 경영컨설팅 산업의 연쇄효과를 알아보면 2005년 영향력계수 0.6662로 28위, 감응도계수 0.4603 28위로 나타났으며, 2009년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며, 영향도계수 0.6500 28위, 감응도계수 0.4432 27위를 보였다. 두 기간 모두 영향도계수와 감응도계수의 수치가 낮게 나타나 경영컨설팅 산업은 최종 수요적 원시산업형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지식집약적서비스 산업 중 대표적인 산업인 경영컨설팅 산업을 대상으로 2000년 중반과 후반 두 기간 동안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제공되는 2005년, 2009년 산업연관분석표 각각을 이용하였으며, 경영컨설팅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연관표 상의 362부문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을 하나의 산업으로 추출하여 29부문으로 외생화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경영컨설팅 산업은 2005년의 경제적 파급효과보다 2009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산업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수요유도모형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2005년 0.6933원에서 2009년 0.7851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0.2881원에서 2009년 0.3039원, 취업유발효과는 0.1124명

에서 2009년 0.1207명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급유도모형의 공급지장효과 역시 2005년 2.6759원 2009년 3.0145원으로 상승하였고 레온티에프 가격 모형도 2005년 0.1691원 2009년 0.2161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간 연쇄효과는 2005년과 2009년 모두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가 낮은 수치를 보이며 최종주요생산품의 성격을 가지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경영컨설팅 산업은 2000년 중반이후 경제적 파급효과의 규모가 커짐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경영컨설팅 산업은 글로벌화가 약하며, 내수 위주의 수익창출이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경영컨설팅 산업과 같은 지식서비스 산업은 규모가 성장하고 성숙되어 지식의 축적 정도가 커질수록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지원은 더욱 필요하다.

둘째, 경영컨설팅 산업은 수요유도모형의 결과에서 보듯이 통신 및 방송,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등 서비스 산업에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를 크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서비스 산업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것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경제 구조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으로 파악된다. 즉,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다.

셋째, 공급지장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영컨설팅 산업이 1원의 산출액 감소가 일어날 경우 전체 국민경제에 3배 이상의 공급지장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 제1차 금속 제품 산업에 가장 크게 공급지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요 2차 산업에 의 원활한 생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균형 있는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다.

본 연구는 경영컨설팅 산업의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처음 시도해 보았다. 분석된 결과에 따라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원활한 생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취업유발효과의 결과에서 보듯이 낮은 파급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컨설팅 산업을 육성하여

수요유도모형의 결과들을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경영컨설팅 산업의 선진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광승준 · 유승훈 · 유태호, (2002). 원자력 발전의 산업 파급효과분석: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하여, 경제학연구, 50(3), 83-109.
- [2] 고경일 · 임효창, (2011). 우리나라 컨설팅업체의 해외 진출 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리뷰, 15(1), 51-75.
- [3] 김승택, (1999). 경영컨설팅산업의 지식경쟁력 강화 방안, 산업자원부.
- [4] 김희주 · 남장근 · 김승택 · 최봉현, (2000).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발전전략, 산업자원부.
- [5] 박병호 · 이동원 · 김연성, 경영컨설팅 서비스품질 측정에 관한 연구, 품질경영학회지, 33권, 3호, 47-58.
- [6] 신동주 · 유연우(2012). 컨설팅사의 역량이 컨설팅 서비스 품질과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4호, 63-78.
- [7] 신태호 · 신성원 · 광홍주, (2006). 한국의 컨설팅산업 현황과 컨설팅시장의 발전을 위한 향후 추진방안, 서비스경영학회지, 7(2), 171-200.
- [8] 유현선, (2008). 컨설팅산업의 기초분석, 산업자원부.
- [9] 임호순 · 백승기 · 허희영, (2005). IT컨설팅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6(2), 3-19.
- [10] 정구상 · 이성희 · 김영진 · 김선아 · 김태성, (2012). 한국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서비스의 사후관리 효과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6호, 159-169.
- [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1). 2010 지식서비스산업 백서, 지식경제부.
- [12] 한국은행, (2007). 2003년 산업연관분석해설.
- [13] 한국은행, (2011). 2009년 산업연관표.
- [14] Miller R. E., & Blair P. D. (1985).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Prentice-Hall.
- [15] Yoo, S. H., & Yoo, T. H. (2009). The Role of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An Input-Output Analysis, Progress in Nuclear Energy, 51, 86-92.

신 용 재



- 2007년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 2009년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 2009년~현재 :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관심분야 : 지식서비스 산업, 인공지능, 모바일 컨버전스, 지식경영 등

· E-Mail : yjidea@naver.com

임 명 성



- 2002년 : 삼육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 2004년 :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 2011년 :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 박사
- 2011년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대우교수

· 2012년 : 삼육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보보안, 서비스 시스템, 혁신

· E-Mail : msyim@syu.ac.kr